

형태상의 공간과 의미

권 경 원
(목원대학교)

Kwon, Kyeong-Won. (2000). Formal space and meaning.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6, 89~111.

Since speaking is correlated with time and time is metaphorically conceptualized in terms of space, it is natural for us to conceptualize language metaphorically in terms of space. For example, we think that the future is in front and the past is behind. Reddy(1979) suggested in his conduit metaphor that linguistic expressions are containers. According to him, the speaker puts his ideas(objects) into words(containers)and sends them along a conduit to a hearer who takes the idea(object) out of the word(container). As a result we are able to know that the larger linguistic expressions have more meaning in it. In other words the space of a linguistic form has close relationship with meaning. Moreover we are able to see that formal distance between arguments or elements of linguistic expressions shows semantic influences between them. If two elements keep close distance, a preceeding element has a strong, direct and whole influcnce upon the following element. Sometimes even the results of the influence can be brought out implicitly by the formal relation between two elemen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that this difference in meaning which is due to formal distance of sentence elements can be explained by the metaphorical concept presented by Lakoff and Johnson(1980)

1. 서론

인간은 언어를 공간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공간적 개념(concept)은 형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장에서 주어가 앞에 오고 목적어가 뒤에 온다고 말하는 것은 언어를 공간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단어 사이가 가깝다 또는 밀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단어가 길다 또는 짧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언어를 공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말을 하는 것은 시간과 관계가 있으며 시간은 공간에 의해서 은유적으로 개념화되기 때문에 언어를 공간의 관점에서 은유적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¹⁾. 이러한 공간적 은유는 문장 형태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형태(form)와 의미(content) 사이의 관계는 결코 임의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Dwight Bolinger(1977)는 바꿔쓰기(paraphrase)는 다른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정확한 바꿔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는 하나밖에 없으며 하나의 형태가 하나의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은 언어의 자연적 조건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언어형태를 공간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언어형태에는 공간적 은유(metaphor)가 적용된다. 그리고 공간적 은유에 의해서 언어형태에 의미가 부여된다.

다음은 Michael Reddy(1979)의 도관은유(conduit metaphor)에 나오는 것으로 언어표현을 그릇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언어표현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공간적인 그릇이라고 개념화되어 있

1) 우리는 미래가 앞에 있고 과거가 뒤에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 a. In the weeks of *ahead* of us...(미래)
 b. That's all *behind* us now.(과거)

(1a)는 앞으로 몇 주 지나면...을 의미한다. 여기서 미래를 *ahead*로 나타내는 것은 시간을 공간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1b)는 그것은 이제 모두 지난 과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도 과거를 공간적 어휘인 *behind*를 쓰고 있다는 것은 시간을 공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세한 것은 Lakoff and Johnson(1980) 참조

다고 생각할 수 있다.

- (1) a. It's difficult to put my ideas into words.
- b. Try to pack more thought into fewer words.
- c. The meaning is right there in the words.
- d. His words carry little meaning.
- e. The idea is buried in terribly dense paragraphs.
- f. Your words seem hollow.
- g. The sentence is without meaning.

(1a)는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은 생각을 담는 하나의 그릇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into*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는 것이다. (1b)는 많은 생각을 적은 말로 나타내려고 노력해 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에도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다. (1c)는 그 의미가 바로 그 말속에 들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서도 말은 의미를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1d)는 그의 말속에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도 말은 의미를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다. (1e)는 그 생각이 조밀한 단락(paragraph)속에 묻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단락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다. (1f)는 당신의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서도 말은 의미를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g)는 그 문장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도 문장은 의미를 담는 그릇이다. 따라서 언어표현은 의미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 그릇에 따라서 의미내용도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예는 언어형태 즉 의미를 담는 그릇이 크면 거기에 담긴 의미도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 (2) a. He ran and ran and ran and ran.
- b. He ran.
- (3) a. He is very very very tall.
- b. He is very tall.
- (4) a. He is b-i-i-i-ig!
- b. He is big.

(2a)와 (2b)는 똑 같이 달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2a)는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또 달렸다는 의미로 (2b)에 비해서 달린 양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3a)와 (3b)의 경우도 똑 같이 키가 아주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3a)는 키가 아주, 아주, 아주 크다는 의미로 (3b)의 아주 키가 크다에 비해서 더 키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4a)와 (4b)의 경우는 음성적인 경우이지만 마찬가지로 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a)는 모음을 길게 발음함으로써 (4b)에 비해서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 논문에서는 형태상의 공간이 의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Lakoff and Johnson이 제시한 개념적 은유를 바탕으로 인지문법(cognitive grammar)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²⁾

II. 형태와 의미론적 영향

변형이론에서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고 주장하는 예를 보기로 하자. 다음 예문에서 나타나는 존재의 there³⁾는 Akmajian and Heny(1975)에 의하

2) Lakoff and Johnson(1980)에 의하면 개념적 은유는 한 종류의 사물을 다른 종류의 사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William Nagy(1974)는 인간의 추상적인 감정을 보다 구체적인 공간개념으로 나타내는 은유적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권경원(1999)에서는 은유를 창의적 은유(creative metaphor), 일상적 은유(daily metaphor),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창의적 은유가 보편화되면 일상적 은유로 바뀌게 되고 일상적 은유가 굳어지면 개념적 은유로 바뀌게 된다. Black(1981)은 은유를 대체(substitution)이론과 비교(comparison)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Richards(1981)는 주제와 매개체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이론으로 은유를 설명하고 있다. Chomsky(1965)를 중심으로 한 변형문법 학자들은 은유를 선택제한(selectional restriction)을 위반한 변형적인 문장으로 간주하고 있다. Grice(1975)는 함축(implicature)의 추론 과정을 통해서 은유를 설명하려고 하였고 Searle(1979)은 주어진 발화(utterance)가 대화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은유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화용론적 해석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Miller(1979)는 은유표현을 명사은유(nominal metaphor), 술어은유(predicate metaphor), 문장은유(sentential metaphor)로 분류하였으며 이들을 해석하기 위한 세 가지 규칙을 제시하였다.

3) there는 존재의 there 와 장소의 there로 구분이 되며 존재의 there는 변형이론에서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어휘로 흔히 유도부사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반면에

면 의미가 없는 요소로 임의적인 변형규칙 즉 there-insertion에 의해서 삽입될 수 있다고 보았다.

- (5) a. Some students are in the ballroom.
- b. There are some students in the ballroom.

변형이론에 의하면 (5a)와 (5b)는 형태가 다르지만 의미가 같다. Brown (1884)도 존재의 there는 의미가 없으며 다음과 같이 문두에 부사가 나타나 는 경우 there는 임의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고 보았다.

- (6) a. In front of the carriage (there) rode two men in magnificent uniforms.

Kuno(1971) 역시 존재문장의 기본은 (7a)와 같이 문두에 장소 부사구가 오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 장소 부사구가 문미로 이동했을 때 (7b)에서 처럼 그 자리에 there가 삽입된다고 보았다. (7c)는 (7b)에 다시 부사구 이동변형에 의해서 문미의 부사구가 문두로 이동한 경우이다. 이 세 문장은 형태가 다르지만 하나의 심층구조(deep structure)에서 임의적인 변형에 의해서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같다고 주장한다.

- (7) a. In front of the carriage rode two men.
- b. There rode two men in front of the carriage.
- c. In front of the carriage there rode two men.

그러나 Bolinger(1977)는 there에도 의미가 있으며 변형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there의 삽입은 임의적이 아니고 there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서 그릇 즉 형태가 다르면 거기에 담긴 의미

장소의 부사는 장소의 의미를 분명하게 나타낸다. 다음 예문에서 (1a)에 있는 there는 존재의 there로 쓰인 것이고 (1b)에 있는 there는 장소의 there로 쓰인 것이다.

- (1) a. There is a book on the table.
- b. John is over there.

도 다르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 예를 보자.

- (8) a. Across the street is a grocery.
 b. Across the street there is a grocery.

Bolinger는 존재의 *there*가 단순히 주어 자리를 채워 주는 무의미한 주어라기보다는 의미가 있는 요소로 보았다. 존재의 *there*는 장소의 *there*가 확장(extension)된 것으로 추상적인 면에서 일반화된 장소를 가리키는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존재구문(existential construction)은 어떤 것을 의식 속에 제시하는 기능을 갖는다. (8a)는 눈앞의 직접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길 건너에 식료품 가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8b)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길 건너에 식료품 가게가 있다는 것을 의식 속에 제시하는 것이다. 그 증거로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다.

- (9) a. *As I recall, across the street is a grocery.
 b. As I recall, across the street there is a grocery.
 c. As you can see, across the street is a grocery.
 d. *I can see that across the street is a grocery.
 e. I can see that across the street there is a grocery.

(9a)가 비문법적인 이유는 의식 속에 어떤 것을 제시하면서 존재의 *there*가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9b)는 생각해 보니까 길 건너에 식료품 가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식 속에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존재구문이 사용된 것이다. (9c)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존재의 *there*가 쓰여서는 안 된다. (9d)의 의미는 나는 길 건너에 식품 가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는 의식 속에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9e)와 같이 존재구문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존재구문을 통해서 우리는 형태가 다르면 의미도 다르다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의미상의 차이는 의미를 담는 그릇 즉, 언어형태를 이루는 구성요소들 사이의 영향 관계에 의해서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존재구문의 경우 제시되는 대상물 즉 새로운 정보(new information)가 주어 자리에 바로 나타나면 정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존재의 *there*가 쓰인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눈 앞에 보이는 구체적인 상황이 아니면 제시되는 대상물은 주어 자리에서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Bolinger(1977)가 제시한 수동구문에 관한 예를 통해서 형태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들 사이의 영향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자.

- (10) a. George turned the pages.
b. The pages were turned by George.
- (11) a. George turned the corner,
b. *The corner was turned by George.
- (12) a. The dog walked under the bridge.
b. *The bridge was walked under by the dog.
- (13) a. Generations of lovers have walked under the bridge.
b. The bridge has been walked under by generations of lovers.
- (14) a. Nobody is to camp beside this lake.
b. This lake is not to be camped beside by anybody.
- (15) a. My sister camped beside this lake.
b. *This lake was camped beside by my sister.

(10a)는 조지가 책장을 넘겼다는 의미이며 (10b)는 책장이 조지에 의해 넘겨졌다는 수동구문(passive construction)이다. (11a)는 조지가 코너를 돌아갔다는 의미이고 (11b)는 코너가 조지에 의해서 돌아갔다는 수동 구문이다. 문제는 (10a)와 (11a)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10a)는 수동이 가능하고 (11a)는 수동이 안 된다는 점이다. Bolinger에 의하면 (10a)에서는 주어인 조지가 책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수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11a)에서는 주어인 조지가 코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수동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능동문장(active sentence)과 수동문장(passive sentence)의 관계를 구성요소들의 영향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12a)는 개가 다리 밑을 지나갔다는 것을 뜻한다. (13a)는 수 세대의 연인들이 다리 밑을 지나갔다는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도 문제는 (12a)는 (12b)에서와 같이 수동이 안 되는 반면에 (13a)는 (13b)에서와 같이 수동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12a)가 수동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개가 다리 밑을

지나갔다고 해서 개가 다리에 영향을 준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반면에 (13a)가 수동이 가능한 이유는 연인들이 다리 밑을 지나갔다는 사실에 의해 연인과 다리 사이에 상호작용에 의해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연인들은 심리적으로 다리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14a)는 아무도 호숫가에서 캠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고 (15a)는 내 여동생이 이 호숫가에서 캠핑을 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도 (14a)는 (14b)에서처럼 수동이 가능하다. 반면에 (15a)는 (15b)에서처럼 수동이 안 된다. (14a)에서는 캠핑을 함으로써 호수를 오염시킨다든가 손상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캠핑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주어는 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동이 가능한 것이다. 반면에 (15a)는 단순히 내 누이동생이 캠핑을 한 장소를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누이동생은 호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수동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⁴⁾

다음 예문은 Lakoff(1971)가 제시한 것으로 실현성이 확실한 객관적 사실인가 아니면 실현성이 불확실한 주관적 사실인가에 따라서 구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6) a. The Yankees play the Red Sox tomorrow.

4) 다음 예문 (1)에서 수동문장이 가능한 이유는 능동문장의 주어가 [+animate]이기 때문이고 (2)에서 수동문장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를 능동문장의 주어가 [-animate]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장은 예문 (10)과 (11)이 둘 다 능동문의 주어가 [+animate]인데도 (10a)는 수동이 가능하지만 (11a)는 수동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할 수 가 없다. 여기서도 (1)에서 수동이 가능한 낯선 사람이 다가오는 것은 나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동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2)에서 수동이 가능하지 못한 이유는 열차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둘 사이의 단순한 기하학적인 거리 관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기차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수동이 가능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 (1) a. The stranger approached me.
 b. I was approached by the stranger.
- (2) a. The train approached me.
 b. *I was approached by the train.

- b. *The Yankees play well tomorrow.
 - c. The Yankees will play well tomorrow.
- (17) a. I like swimming.
- b. I like to swim.

(16a)는 Yankee팀이 Red Sox팀과 내일 경기를 한다는 의미이다. 미래를 나타내면서 현재시제를 쓰고 있다. (16b)는 Yankee팀이 내일 경기를 잘 할 것이라는 의미로 역시 미래를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시제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16a)는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시제가 가능한 반면에 (16b)는 주관적 사실을 나타냄으로 현재시제가 쓰일 수 없다는 것이다. 주관적 사실을 나타낼 때는 (16c)처럼 사용해야 된다. 객관적 사실은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올 수 있지만 주관적 사실은 동사가 주어로부터 거리가 멀어진다. (17a)는 나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17b)는 나는 수영하고 싶다는 것을 뜻한다. (17a)에서 쓰인 동명사(gerund)는 과거 지향적인 것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과거부터 수영을 해왔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에 (17b)에 쓰인 부정사(infinitive)는 미래지향적인 것을 나타낸다. 즉, 앞으로 수영을 할 것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미 실현된 것은 동사가 주어에 가까이 위치하지만 아직 실현되지 못한 것은 상대적으로 주어에 가까이 위치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어 동사 사이가 객관성 또는 실현성이 의해서 가까울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았다. 두 개의 구성요소가 형태상으로 가까이 위치한다는 것은 서로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서로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두 구성요소가 서로 밀리 떨어지게 되면 둘 사이의 관계를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비문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자.

- (18) a. a student of physics with long hair
- b. *a student with long hair of physics
- (19) a. A student came to see me yesterday with long hair.
- b. *A student came to see me yesterday of physics.
- (20) a. Poirot speaks English fluently.
- b. *Poirot speaks fluently English.

- (21) a. I prefer the boys to leave first.
 b. *I prefer very much the boys to leave first.
 c. I prefer very much for the boys to leave first.
 d. I prefer very much that the boys should leave first.
- (22) a. Poirot sincerely believes English to be important.
 b. *Poirot believes sincerely English to be important.
 c. Poirot believes sincerely that English is important.

(18),(19)는 Radford(1981)에 나오는 예이다. (18a)는 긴머리의 물리학도이고 (18b)는 물리학을 하는 긴머리 학생이다. (18a)는 두 개의 전치사 *of physics, with long hair*가 중심어인 *student*를 수식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전치사라도 중심어(head)와 의미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치사가 중심어에 가까이 온다는 점이다. 중심어인 학생은 장발보다는 물리학이 의미상으로 가깝기 때문에 *of physics*가 먼저 오고 *with long hair*가 뒤에 온다.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18b)는 비문이 된 것이다. (19a)에서는 학생과 장발이 의미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19b)에서는 학생과 물리학이 의미상으로 관계가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둘 사이의 관계를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비문이 되었다. (20)에서 (22)까지의 예는 Haegeman(1991)에서 발췌한 예문이다. (20a)에서 동사 *speaks*는 목적어 *English*에 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둘 사이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b)가 비문인 이유는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fluently*가 삽입되어서 동사가 목적어에 격을 부여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21a)에서 *prefer*는 *the boys*에 목적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둘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1b)가 비문인 이유는 *very much*가 *prefer*와 *the boys* 사이에 들어와서 격을 부여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21c)는 전치사 *for*가 *the boys*에 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very much*가 둘 사이에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즉 (21c)에서는 *prefer*와 *the boys*는 밀접한 관계가 없다. (21d)에서는 보문(complement sentence)의 동사가 *the boys*에 주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very much*는 격을 부여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22a)에서도 *believes*는 *English*에 목적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둘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22b)는 그 둘 사이에 *sincerely*가 삽입되어서

격을 부여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비문이 된 것이다. 그러나 (22c)는 *English*가 내포절(embedded sentence)의 동사에 의해 주격을 부여받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sincerely*가 삽입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는 의미를 담는 그릇인 언어형태가 다르면 거기에 담긴 의미내용도 다르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형태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들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성요소들은 서로 가까이 위치하게 되며 그 둘 사이에 다른 요소들이 삽입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예를 통해서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능동구문과 수동구문에서 보았듯이 언어형태를 이루고 있는 두 구성요소들 사이에 나타나는 영향 관계가 언어형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III. 공간적개념과 의미

여기서는 문장을 이루는 두 구성요소들 사이의 거리 관계가 의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23) a. Who are the men closest to president Clinton?
 b. Who are the men who have the strongest effect on president Clinton?

(23a)는 클린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23a)를 (23b)로 받아들인다. 다시 말해서 (23a)는 (23b)가 의미하는 것처럼 클린턴 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리 관계는 영향력과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언어형태에서도 두 요소가 거리가 가까우면 영향력이 강하고 거리가 멀면 영향력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은 직접적이고 전체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고 영향력이 약하다는 것은 간접적이고 부분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24) a. Mary doesn't think he'll leave until tomorrow.
 b. Mary thinks he won't leave until tomorrow.

(24a)는 Mary는 그가 내일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24b)는 Mary는 그가 내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두 문장의 진리조건적(truth conditional) 의미는 같다. 그러나 두 문장은 그가 내일 떠나지 않는다는 명제(proposition)에 대한 부정의 강도가 다르다. (24a)에서는 *leave*를 부정하는 *not*이 내포문을 벗어나 멀리 떨어져 있다. 반면에 (24b)는 *leave*를 부정하는 *not*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다시 말해서 둘 사이의 거리 관계에 의해서 부정의 강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24a)는 그가 내일 떠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약한 부정을 나타낸다. 반면에 (24b)는 그가 내일 떠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강한 부정을 나타낸다. 다음 예문에서도 똑 같은 현상을 알 수 있다.

- (25) a. Harry is not happy.
 b. Harry is unhappy.

(25a)와 (25b)는 둘 다 Harry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25a)에서는 *happy*를 부정하는 *not*이 그 단어 앞에 위치해 있는 반면에 (25b)에서는 *happy*를 부정하는 *un*이 바로 앞에 위치해서 한 단어를 구성하고 있다. 여기서도 거리 관계에 의해서 *happy*를 부정하는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5a)는 Harry가 행복하지는 않다는 약한 부정인 반면에 (25b)는 Harry가 행복하지 않은 정도를 넘어서 슬프다는 의미까지를 나타내는 강한 부정이다. (25a)는 행복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제까지는 형태상의 거리에 따라서 의미상으로 끼치는 영향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았다. 다음 예문에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 (26) a. He rode the horse.
 b. He rode on the horse.
 (27) a. I want him to come.
 b. I want for him to come.

- (28) a. We ordered him to come.
- b. *We ordered for him to come.
- (29) a. The player kicked the ball.
- b. The player kicked at the ball but missed it.

(26a), (26b)는 모두 그는 말을 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26a)는 (26b)에 비해서 주어와 말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깝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말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26a)는 그는 말을 통제해 가면서 탔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26b)는 그는 단순히 승마를 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두 문장의 의미 차이는 동사 다음에 나오는 전치사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다시 말해서 동사 다음의 전치사는 동사의 동작에 대한 방향과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26b)는 *ride*라는 동작의 결과로 말 위에 올라 탄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따라서 말을 조종하면서 탔다는 의미보다는 단순히 말 위에 올라탔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상의 차이가 형태상의 거리 관계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27)도 두 문장이 모두 나는 그가 오기를 원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27a)에서는 주어와 부정사 보문의 명제가 (27b)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27a)에서는 주어가 그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27b)에서는 그 바램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28)에서도 주어가 보문의 명제를 지시하고 있다. 보문이 똑 같은 부정사 구문이지만 주어의 영향이 강하면 전치사 *for*를 쓰지 않는다. *order*라는 동사는 주어의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for*를 쓰게 되면 틀린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28b)가 비문이 된 것이다. (29)는 그 선수가 공을 찼다는 것을 의미한다. (29a)는 그 선수와 공이 거리가 가깝다. 반면에 (29b)는 상대적으로 둘 사이가 멀다. 거리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도 의미상으로 차이가 난다. (29a)는 그 선수가 공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공을 제대로 찬 것이다. 그러나 (29b)에서는 그 선수가 공을 겨냥해서 찼지만 실수해서 헛발질을 했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29b)는 주어가 목적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다음 예문은 두 구성요소의 거리 관계에 따라서 의미상의 영향이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30) a. I found that the chair was comfortable.
 b. I found the chair to be comfortable.
 c. I found the chair comfortable.
- (31) a. I told him to do it.
 b. I told him that he should do it.
- (32) a. Sam killed Harry.
 b. Sam caused Harry to die.
 c. Sam brought it about that Harry died.

(30)의 예문은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나는 그 의자가 편안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주어 *I*와 *chair* 그리고 *comfortable* 사이의 거리 관계에 의해서 의미의 차이가 나타난다. (30a)에서 의자는 내포문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 편안하다는 보어와는 떨어져 있다. 그리고 의자가 편안하다는 명제를 알게 된 주어는 주절에 있다. 주절의 주어와 내포문의 의자는 순환교점(cyclic node)⁵⁾에 의해 서로 다른 절에 있기 때문에 형태상의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주절의 주어는 내포문의 명제를 다른 사람의 보고나 또는 광고지를 읽고서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0b)는 내포문이 부정사 구문으로 되어 있다. (30a)에서는 의자가 분명히 보문의 주어로 쓰이고 있지만 (30b)에서는 의자가 주절 동사의 목적어로도 인식될 수도 있고 보문의 주어로도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주절의 주어와 의자 사이의 거리는 (30a)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깝다고 할 수 있다. (30b)의 의미는 주절의 주어가 직접 조사를 해보고 그 결과 내포문의 명제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0c)는 주절의 주어와 의자 사이의 거리는 아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둘은 똑 같이 하나의 절(clause) 속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30c)의 의미는 주절의 주어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의자가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31a)와 (31b)도 나는 그에게 그것을 하라고 이야기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31a)는 지시되는 명제가 부정사 구문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31b)는 *that*절로 되어 있다.

5)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을 구성하는 교점(node)을 말하며 순환원리(cyclic principle)에 의하면 밑에 있는 순환(cycle)부터 시작하여 상위 순환으로 규칙을 적용해 나간다. 일반적으로 순환교점은 S, S-bar, NP 등이 있다.

(30)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정사 구문보다는 that절이 거리를 더 멀게 하기 때문에 두 문장은 의미상으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31a)는 주절의 주어가 지시되는 명제를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것이고 (31b)는 간접적으로 지시하는 것이다. (32)의 예문도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Sam이 Harry를 죽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Sam과 Harry의 죽음을 나타내는 명제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의미상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a)는 단문 (simple sentence)으로 Sam과 Harry 사이의 거리는 아주 가깝다. (32a)는 Sam이 Harry를 직접적으로 죽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32b)는 보문이 부정사 구문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Sam과 Harry사이의 거리는 (32a)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멀다고 할 수 있다. (28b)는 Sam이 Harry를 간접적으로 죽였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32c)는 보문이 that절로 되어 있다. (30)에서 살펴본 것처럼 (32c)는 부정사 구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32b)에 비해 Harry의 죽음에 대해서 더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는 형태상의 거리는 의미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에 제시된 이기동(1994)의 예문에서도 똑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 (33) a. We saw Mary paint the picture.
- b. We saw that Mary painted the picture.
- (34) a. I know him.
- b. I know about him.
- (35) a. He suffered pain.
- b. He suffered from loss of memory.
- (36) a. I heard that Mary passed the exam.
- b. *I heard Mary pass the exam.

(33)은 우리는 Mary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33a)는 단문이고 (33b)는 복문이다. (33a)에서는 주어와 Mary가 같은 절에 있으며 거리도 가깝다. 반면에 (33b)는 주어와 Mary는 서로 다른 절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33a)는 Mary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주어가 직접 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33b)에서는 Mary가 그림 그리는 것을 주어가 간접적으로 들었거나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추리

를 해서 알게 되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34)는 나는 그를 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34a)에서는 주어와 목적어의 거리가 가까운 반면에 (34b)에서는 둘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다. (34a)의 의미는 내가 그를 직접 만나 사귀어 보고서 알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34b)는 내가 그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글을 읽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5)도 주어 목적어의 관계다. (35a)는 (35b)에 비해서 주어와 목적어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깝다. (35a)는 육체적 고통과 같은 직접적인 고통으로 시달린다는 의미를 지닌다. 반면에 (35b)는 심리적 고통과 같이 간접적인 고통으로 시달린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36)은 나는 Mary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의미이다. (36a)에서는 Mary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보문의 명제를 주어가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36b)는 나는 Mary가 시험에 합격하는 소리를 직접 들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Mary가 시험에 합격할 때 나는 소리는 없기 때문에 (36b)는 비문이 된 것이다.

다음의 예는 형태상의 거리가 부분적 또는 전체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37) a. She sprayed the paint on the wall.
 b. She sprayed the wall with the paint.

(37)은 두 문장이 모두 그녀는 벽에 페인트칠을 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37a)는 주어가 페인트와는 가깝지만 벽과는 거리가 멀다. 반면에 (37b)는 주어가 벽과는 거리가 가깝지만 페인트와는 거리가 멀다. 다시 말해서 (37a)에서 주어는 페인트에는 강한 영향력이 있지만 벽에는 영향력이 약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37b)에서 주어는 벽에 영향력이 강하지만 페인트에는 영향력이 약하다. 이러한 관계가 의미에 영향을 주게 되어서 (37a)는 그녀가 벽에 부분적으로 페인트칠을 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37b)는 그녀가 벽 전체를 페인트칠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거리에 따라서 의미상으로 부분적 또는 전체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다음 예는 형태상의 거리에 따라서 의미상의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38) a. John threw Jane a ball.
 b. John threw a ball to Jane.
 c. *John threw Jane a ball, but it never reached her.
 d. John threw a ball to Jane, but it never reached her.
- (39) a. *I got Mary the picture, but she didn't receive it.
 b. I got the picture for Mary, but she didn't want it.
- (40) a. She threw away the key.
 b. She threw the key away.
- (41) a. They hauled in the lines but didn't get them in.
 b. *They hauled the lines in but didn't get them in.
- (42) a. I taught Harry Greek.
 b. I taught Greek to Harry.

(38a)와 (38b)는 John이 Jane에게 공을 던졌다는 것을 뜻한다. (38a)는 John과 Jane의 거리가 가까운 반면에 (38b)는 John과 공의 거리가 가깝다. 이것은 (38a)에서는 John이 Jane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38b)에서는 John이 공에 보다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두 문장의 의미상의 차이가 나타난다. (38a)는 John이 Jane에게 공을 던져서 그 결과 Jane이 공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38b)는 John이 Jane에게 공을 던졌으나 Jane이 그 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시 말해서 (38b)에서는 그 결과를 알 수 없다. (38c), (38d)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38c)가 비문인 이유는 John이 Jane에게 공을 던져서 그 결과 Jane이 그 공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선행절이 가지고 있음에도 후속절에서 John이 던진 공이 Jane에게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선행절과 후속절이 서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38d)는 John이 Jane에게 공을 던졌지만 Jane이 그 공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후속절에서 그 공이 Jane에게 가지 못했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39)의 경우도 비슷하다. (39a)는 Mary에게 영향을 준 것이고 (39b)는 그 그림에 영향을 준 것이다. (39a)는 내가 Mary에게 그 그림을 사주어서 Mary가 그 그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39b)는 나는 Mary를 위해서 그 그림을 샀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39b)에서는 Mary에게 그 그림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녀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 않았다는 의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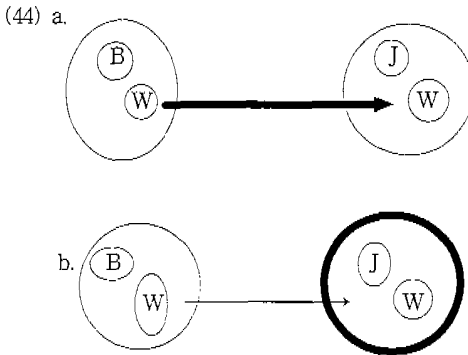
강하다. 그러나 (39a)에서는 그녀가 그 그림을 받지도 않았는데 John이 사주어서 Mary가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비문이 되는 것이다. (40)의 의미는 그녀가 열쇠를 멀리 던졌다는 것이다. (40a)에서는 주어와 열쇠의 거리가 (40b)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멀다. 그 결과 (40a)에서는 그녀가 열쇠를 멀리 던졌지만 열쇠가 사실이 멀리 던져졌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40b)에서는 열쇠가 멀리 던져졌다는 결과까지도 나타낸다. (40a)에서는 *away*가 부사로 쓰이고 있지만 (40b)에서는 *away*가 열쇠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사용되고 있다. (41)에서 (40) 과 관련된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 (41a)는 그들은 그 줄을 안으로 당겼다 그러나 그 줄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여기서는 선행절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후속절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41b)에서는 그들이 그 줄을 안으로 당겨서 그 줄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결과를 선행절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후속절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후속절에서는 그 줄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선행절과 모순을 이루기 때문이다. (42)는 나는 Harry에게 회랍어를 가르쳤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42a)에서는 Harry가 주어에 가까이 있고 (42b)에서는 Harry가 주어에 멀리 떨어져 있다. 그 결과 (42a)는 내가 Harry에게 회랍어를 가르쳐서 Harry는 회랍어를 잘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42b)는 내가 Harry에게 회랍어를 가르쳤지만 Harry가 회랍어를 잘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의 예는 형태상의 거리에 의해서 영향을 주는 강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의미상의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음의 예는 Langacker(1991)에서 제시된 예문이다. 여기서도 여격구문의 경우 형태상의 거리에 의해서 소유 관계가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소유 과정이 초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Langacker는 그러한 관계를 도식(schema)으로 보여줌으로써 의미상의 차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 (43) a. Bill sent a walrus to Joyce.
 b. Bill sent Joyce a walrus.

(43)은 Bill이 Joyce에게 해마를 보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43a)는

Bill과 해마의 거리가 (43b)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깝다. (43b)에서는 Bill과 Joyce가 가깝다. 그 결과 (43a)에서는 Bill이 Joyce에게 해마를 보냈지만 Joyce가 그것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가 없다. 그러나 (43b)에서는 Bill이 해마를 Joyce에게 보내서 이제는 Joyce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43a)는 해마가 Bill로부터 Joyce에게 옮겨가는 과정이 부각되고 (43b)는 Joyce가 해마를 소유하고 있다는 결과가 부각된다. 이러한 의미상의 차이를 Langacker는 도식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44a)는 Bill이 소유하고 있는 해마가 Joyce에게 소유가 바뀌는 과정이 부각되고 있다. 굵은 선은 그 문장의 초점이 되는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4b)는 Bill이 해마를 보내 줘서 Joyce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굵은 선으로 나타낸 원은 소유 관계가 바뀐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도식은 화자나 청자의 의미 영상을 나타낸다.

(43)과 같이 *to*가 있는 문장은 탄도체(trajector)가 이동하는 경로를 나타내는 것으로 탄도체의 경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to*가 없는 문장은 탄도체가 이동한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44a)는 탄도체의 경로가 부각되고 (44b)는 탄도체의 이동 결과가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44a)는 해마가 이동하는 경로 상에 있기 때문에 Joyce의 영향권 안에 들어 갔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반면에 (44b)에서는 탄도체가 이동하여 그 결과 Joyce의 소유가 되었다는 보여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미상의 차

이가 문장의 형태상의 공간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다음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다.

- (45) a. I sent a walrus to Antarctica.
 b. ? I sent Antarctica a walrus.
 c. I sent the zoo a walrus.
- (46) a. I gave the fence a new coat of paint.
 b. ? I gave a new coat of paint to the fence.
- (47) a. I cleared the floor for Bill.
 b. ? I cleared Bill the floor.
 c. I cleared Bill a place to sleep on the floor.
- (48) a. I baked her a cake.
 b. ? I mowed her the lawn.

(45a)는 내가 해마를 남극에 보냈는데 잘 갔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의미이다. (45b)도 내가 남극에 해마를 보내서 그 결과 남극이 해마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남극은 어떤 대상을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문이 된 것이다. 여격 구문은 소유 관계를 나타낸다고 앞서 말한바 있다. 그러나 (45c)는 (45b)와 똑같은 구문이지만 해마를 동물원에 보내서 동물원이 그 해마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46a)는 내가 울타리에 페인트칠을 했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울타리를 새 페인트의 소유자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46b)에서는 *to*에 의해서 페인트가 울타리로 이동해 가는 과정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할 수 있다. (47a)는 내가 Bill을 위해서 마루를 청소했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는 소유 관계를 나타내지 않음으로 문제가 없다. (47b)는 내가 마루를 Bill에게 청소해 주었다는 의미이다. 이 때에는 그 결과 Bill이 마루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이상하다고 할 수 있다. (47c)는 내가 Bill에게 마루에서 잠을 잘 자리를 청소해 주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는 Bill이 그 결과 자기가 잠을 잘 수 있는 자리를 소유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8)에 대해서 알아보자. (48a)는 나는 그녀에게 과자를 구어 주었다는 의미이다. 그 결과 그녀는 과자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48b)는 나는 그녀에게 잔디를 깎아 주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 결과 그녀는 잔디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48b)는 잔디의 소유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이상해진 것이다. 우리는 Langacker가 제시한 여격 구문을 통해서도 형태상의 거리는 영향력의 강도를 나타내며 그 결과 소유 관계를 보여 준다는 것을 보았다. 만일에 형태상의 거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소유 관계가 의미상으로 성립되지 않으면 비문으로 처리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IV. 결 론

도관은유에서 제시된 것처럼 형태는 의미를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형태가 다르면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언어형태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담긴 의미내용도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주어진 형태 안에서 구성 요소들의 배열은 의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형태 안에 있는 논항(argument)들이 이동할 때에는 구성 요소들 사이의 거리 변화로 인하여 영향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변형이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동변형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구성 요소들 사이의 거리 관계는 의미상의 영향력과 관계가 있다. 거리가 멀면 간접적이고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영향력도 약하다. 반면에 거리가 가까우면 직접적이고 전체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며 그 영향력도 강하다. 때로는 그 영향에 대한 결과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형태가 크면 의미내용도 크다」는 것과 「형태상의 거리가 가까우면 의미상으로도 거리가 가깝고 형태상으로 거리가 멀면 의미상의 거리도 멀다」는 은유적 개념(metaphorical concept)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언어형태에 관한 은유적 개념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언어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섬세한 의미상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은유적 개념에 의해서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대상물의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할뿐만 아니라 형태와 연관된 미묘한 의미상의 차이까지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점에

서 은유는 언어학에서 주변적인 현상이 아니라 중심적인 현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경원. (1997). 개념적 은유에 관한 연구. *언어연구*, 15(1).
- 이기동. (1994). *영어 동사의 문법*. 서울: 신아사.
- 이익환. (1986). *의미론 개론*. 서울: 한신문화사.
- 이익환. (1995). *현대영어학 개관*. 서울: 한신문화사.
- Akmajian, A., & Frank, H. (1975).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transformational syntax*. Cambridge, London: The MIT Press.
- Black, M. (1981). Metaphor. In M. Johnson (Ed.), *Philosophical perspectives on metaphor*.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olinger, D. (1977). *Meaning and form*. New York: Longman Inc.
- Brown, G. (1984). *A grammar of English grammar*. New York: William Wood.
-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IT Press.
- Grice, P. H.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Davidson and Harman (Eds.), (pp. 64-74).
- Haegeman, L. (1991). *Introduction to government & binding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uno, S. (1971). The position of locatives in existential sentences. *Linguistic Inquiry*, 11, 78-334.
- Lakoff, G. (1971). *Presupposition and relative well-formedness in seman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koff, G., & M. Johnson. (1980). *Metaphor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ngacker, R. W. (1991). *Concept, image and symbol*. Berlin : Mouton de Gruyter.

- Miller, G. A. (1979). Image and models, similes and metaphors. In A. Ortony (Ed.), (pp. 50-202).
- Nagy, W. (1974). Figurative patterns and redundancy in the lexic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 Radford, A. (1981). *Transformational syntax*.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ddy, M. (1979). The conduit metaphor. In A. Ortony (Ed.), *Metaphor and thought*.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chards, I. A. (1981). The philosophy of rhetoric In M. Johnson (Ed.), *Philosophical perspectives on metaphor*.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earle, J. (1979). Metaphor. In A. Ortony (Ed.), (pp. 92-123).